

2009년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오늘의 교육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심기일전의 자리

지난 1월 16~17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2009년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200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지었고, '교육이 고통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 학부모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 막아내'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20여 명이 모인, 16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총회는 내외빈 인사, 신임회장·수석 부회장 이취임식, 감사보고, 2009년 신임 지회장 인준, 부회장 선출, 집행위원회 위원장 인준, 감사선출, 2008년 사업 및 결산 승인, 2009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지회 해산의 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큰 의견차이 없이 모든 안건들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무난히 처리되었다. 다만, 마지막 안건인 '칠곡 지회 해산의 건'에서는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많은 대의원들의 의지로 부결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부지회 많은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회는 지난 몇 년간 생각의 차이로

갈등으로 점철된 총회를 치러야 했었다. 당시 서로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갈등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 23차 총회는 달랐다. 우리 앞에 닥친 교육의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 모든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었다. 심적 상처도, 소통의 어려움도, 용광로처럼 녹여 나가는 자리였다.

장은숙 신임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

는 '교육개혁'은 '돈 많은 순서대로 명품 학교 가자'는 것이며, 사교육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고자 학교교육을 파행과 파탄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교육은 고통이 되고 신음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교육운동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전반은 위기에 처해 있어, 정치·정책적 대응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활동가들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오늘의 교육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심기일전의 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회가 20년 전의 창립초기의 시대로 돌아가 조직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각오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운동을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학부모를 조직하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함께하는 교육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회가 시작되기 전, 내빈으로 김영만 고문, 외빈으로 박영미 한국여성연합대표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노현경 인천 교육위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여, 많은 활동가들에게 힘을 주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 우리회를 힘차게 이끌어갈 20여명의 신임 지부지회장 인준, 집행위원회 위원장 인준, 부회장 선출 속에서 많은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불안을 덜고, 교육을 통해 희망 갖도록 실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 01.06 [성명] 주경복 교수 2차소환에 대한 교육, 종교, 노동, 시민사회단체 성명
- 01.07 [보도자료]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학교관계자 증언 간담회
- 01.13 [성명] 대형 교복업체의 교복값 폭등 횡포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성명

- 01.13 [성명] 주경복 시민후보진영에 대한 편파 왜곡 수사 비판과 공정택 사퇴 촉구 성명서
- 01.21 [논평]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둘러싼 학교측의 학부모 협박 사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논평
- 01.23 [성명] 연세대의 위험천만한 본고사 부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달의 주요기사

- 02 아름다운 학교문화만들기 일제고사가 뭐길래?
- 04 교육자치 2009년도 새학기 학부모교실이 열립니다
- 05 정책 교육정세와 2010년 교육감 선거

- 11 학부모 한마당 안승문의 스웨덴-핀란드 교육이야기⑨
- 12 지부지회 소모임 경주준비위 _ 경주교육정책 포럼
- 14 2008 상담 통계분석 성적에만 몰두하는 학교, 무너지는 학생인권

신나는 체험을 나눕시다!

글 200자 원고지 6~8매 정도

사진 파일형태

보낼 곳 hakbumonews@paran.com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문의 02-393-8900 / 010-5165-7585 송환웅

긴 겨울방학이 어느덧 끝나갑니다. 우리 희망, 청소년 여러분! 즐거웠나요? 신이 났어요? 새로운 체험으로 별천지를 알게 되었나요? 뜨거운 봉사로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었나요? 자연과 생명 더 나아가 우주에 대한 꿈을 꾸었나요?

방학 동안에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 자신의 체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정리의 계기임과 동시에 나의 체험을 더불어 나눔으로써 간접 경험을 통한 너와 나의 시야를 넓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체험을 글이나 사진으로 우리회로 보내 주시면 뽑힌 글이나 사진에 대해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응모바랍니다.

1회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 문화 만들기
2회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 가정방문, 편지보내기
3회 학년말 책거리 행사와 함께 스승의 날을 치루자
4회 새로운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의 모색
5회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생활이다

6회 자원봉사가 나아갈 길
7회 운동회
8회 모범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
9회 모범적인 학급운영과 동아리 활동
10회 학부모의 학교참여

11회 학교를 알면 자녀 교육이 보인다
12회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13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14회 급훈
15회 학교급식

16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17회 체험학습
18회 바람직한 대학진학의 길
19회 한글날 특집
20회 지자체의 학교지원

21회 바람직한 청소년 인성지도
22회 다양한 겨울방학 보내기
23회 일제고사가 뭐길래?

일제고사로 해임된 교사에게 듣는다

교육 본연에 충실하고자 했던 담임교사가 해야 할 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일제고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가정통신문 내용을 들어 밝혀보겠다.

먼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의 질 관리를 위해?” 현재 교육과정과 선생님이 가르치는 행위를 점검하고 뒤돌아보자는 의미인데, 이것은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런 방법을 표집 평가라 하는데, 지난 십년간 교육과정평가위원이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표집평가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를 볼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학습부진학생의 판별과 지도를 위해?” 판별과 지도 중에서 학습부진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일제고사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학습부진학생 판별은 학생 본인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안다. 우리 동네 학교들 중 어느 학교가 다소 뒤쳐지는지도 학생, 선생님, 학부모, 지역주민이 더 정확하게 안다. 문제는 부진학생을 판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도’이다. 학습부진학생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판별보다 책임지도 시스템 구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판별을 위한다는 일제고사는 필요없다.

세 번째,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정택 교육감은 초등학교도 경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글쎄, 난 여기에 대해 의문이다. ‘서로서로 비교하는 경쟁’이 정말 학생에게 도움이 될까? 자신을 이기면서(이 말을 자신과의 경쟁이라 바꿔본다면), 즉 자신과는 경쟁하고, 타인과 협력할 때 비로소 참된 공부가 되지 않을까? 매사 남과 비교하고 이기려고만 하는 인물이 한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은 주변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아이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이것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야기되는 이유이다. 이번 일제고사는 각 과목별로 우수/보통/기초/미달 중 네 등급을 매긴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서열을 매길 수 있다. 등급별로 몇 점씩 하여 합하면 된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수준을 알고자 한다면, 등급이 아니라 점수를 내면 된다. 여기에 학교, 지역, 전국 석차까지 알려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물론 잔인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 이런 형태의 수준을 알아서 뭘 할까? 남과 경쟁하는데 쓸 뿐이다. 그래서 잠을 덜 자고, 학원 더 가고 그럴 것이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수준이란 ‘내가 이걸 확실히 알고 이걸 조금만 아는구나’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걸 잘 못하는구나’ 정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수준은 선생님과 교실에서 공부하는 걸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일제고사까지 볼 필요없다.

우리 아이들의 담임교사인 나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일제고사의 필요성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문과 우려감이 들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선택권이 있음을 안내하고 시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주었다. 그리고 일제고사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낀 학생, 학부모가 제출한 체험학습 신청서를 허가하였다. 이것은 교육 본연에 더욱 충실하고자 했던 담임교사가 해야 할 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니 백보, 천보 양보해 이유 생략하고 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에도 일제고사에 대해 우려하는 담임교사와 일제고사라는 교육정책보다 체험학습이 더 교육적이라 생각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때는 어떡하는 것이 민주적인 것인가? 교사는 해임파면, 학생은 무단결석, 학부모는… 글쎄, 학부모는 징계내릴 방법이 없으니, 인격을 모욕하는 전화를 수시로 해대는 것이 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할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가? 그들은 왜 이렇게 폭압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무시하고 밟아야만 했을까? 일제고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것들이 학교정보공시제, 고교선택제

도, 사교육시장 부흥, 결국에는 교육 시장화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을 걱정하는 담임교사인 나는 정말 묻고 싶은 것이 많다.

해직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50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그 중에는 일제고사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해직사태를 보며 분노하고, 그러면서 일제고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다는 분들도 많았다.

내가 10월 일제고사로 만난 우리반 학부모님들도 그랬다. 이번 일을 겪으시며 교육3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의 권리,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계기가 되셨으리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워온 민주주의와 인권은 힘겹지만 그들의 가슴속, 머릿속에서 커가고 있는 중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교실이 아닌 거리에서 보내게 될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명박 정부가 준 선물로 생각하련다. 밀도있게, 그러나 여유있게 나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즐길 것이다. 우리반 학생이 방학 숙제로 쓴 글의 한 부분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 선생님을 빨리 교실로 보내주는 게 좋을 거 같다. 어차피 돌려보낼 텐데, 잠시 겹주면 뭐해? 한나도 겁 안 나는데 ~”

설은주 (유현초 일제고사 관련 해임교사)



일제고사, 어떻게 볼 것인가?

일제고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일제고사에 대한 토론은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를 지배하는 시험 제도 일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시험이 지닌 한계는 명백하다. 그것은 첫째, 인간의 다양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제한된 영역에 대한 제한된 방식의 평가로 인해 교육이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배움의 기쁨이라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고 시험 결과에 따른 상벌이라는 외재적 동기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셋째, 시험으로 인한 서열화가 학생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지닌 편리성에 교사들도 굴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배움의 기쁨을 유발하는 것은 힘든 것이고, 시험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편리하다.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힘든 것이고, 객관식으로 출제해서 컴퓨터로

채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편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편리성보다 더 강력한 것은 점수로 나타난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그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신화이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일제고사를 넘어 시험이라는 제도에서 교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이다.

물론 일제고사는 시험 제도 일반이 지닌 문제를 증폭하고 거기에 더하여 새로운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학교 간 성적 경쟁을 강화하여 교육의 획일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험으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사의 평가권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일제고사가 지닌 찬성 논리도 간과할 수는 없다.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의무교육 하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표집으로 하는 것이 옳으나 전집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는 그 자체로 가려지

기는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점수로 서열화해서 학생들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학습부진이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전국 단위의 시험을 보는 이유 중에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지점이다.

이제 1년의 실험이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당국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통해 학습부진을 진단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에 걸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일제고사를 위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교육 투자가 따라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향후의 일제고사가 서열화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제고사를 비판할 수 있을 만큼 교사 차원의 평가가 의미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을 넘어서 배움의 기쁨을 일깨움으로써 배움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득이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우열에 의해서 자아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제고사가 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는 자율적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와 교사는 시험성적에 의한 책무성을 넘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포괄적 책무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이처럼 일제고사 문제는 단순히 찬반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문제이다. 갈 길이 멀다.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난, 내가 선택 할 수 없는 일들에 반대 했을 뿐이고 그래서 시험을 안 본 것 뿐이고...

최근에 국방부에서 선정한 금서 목록 중에 “나쁜 사마리아인”이란 책이 있었다. 그 책의 결론을 거칠게 표현 하자면, 현재의 신자유주의의 추구가 가난한 국가의 국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고 기술/자본이 고도화된 선진국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취약한 산업부분은 경쟁력을 갖도록 국가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더불어 이러한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가 현재 선진국화된 여러 나라들이 아주 최근 까지 고집해 왔었던 정책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증명 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자. 그냥 할 법한 이야기다. 술자리에서 늘어놓는 객설일 수도 있고, 그 많고 혼한 미국에 대한 음모론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이 금서가 된 가장 단순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논지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야, 더 나아가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 입

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 과연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분일까? 최근 취약 계층에 대한 급식이 2008년 여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더 불어 보호해야 할 교육 대상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줄었다. 과거 영국이 공교육을 시장에 내 맡긴 이후로 보호 받아야 할 계층이 심각히 늘어났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했다고 한다. 남의 일 보듯 하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제고사의 시행이 이러한 “거인과 난장이의 레이스”를 유도 할 것이란 판단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의료나 부동산 처럼 공공의 성격을 가져야 할 교육부분이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에 편입되어서 무한 경쟁, 무한한 사교육비 경쟁에 내몰릴 것이란 상상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몇 백씩 하는 과외나 학원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말이다. 가까운 미래에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가게 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진학담당선생이 아닌 다음에야 행복 혹은 인생에 가치를 이야기 하면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왜 예로 드는가? 여기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표현된 허위의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이다.

더불어 우리의 아이들이 꼭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녀야 행복 해 진다고 믿는 자신에 대해서 말이다.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에 연연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아주 많이 좌절감에 빠지는 상황에 말이다. 그래 그런 생각을 버려보자! 그러나 불편하다. 그것이 허위의식이고 지금부터 이것을 버리자

고 다짐해도 여전히 불편하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학력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편견들이 학력에 대한 출세우기를 조장하고, 더불어 부의 분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아니 미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서열화로 부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을 대물림을 하고 있고, 우리 누구도 그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두렵다 아주 많이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에도 반복 될 상황이 말이다.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판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서열화의 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짐한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그 미래에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고, 일제고사를 통해 반복될 수 있는 그 악순환을 끊어 보자고,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틀을 개선해 보자고 말이다.

규리, 규민, 준원이 아빠 김용현

2009년도 새학기 학부모교실이 열립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학부모는 모두 모이세요”

새학기를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맘 때가 되면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히게 마련이다. 새로 초등학생이 되거나 중·고등학생이 되는 학부모들에게 새학기는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 섞이고, 새학년을 맞이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심정이 된다. 이 시기에는 자칫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과도한 학습부담만을 강요하기 쉽다. 매일 쏟아지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었는지 되돌아보고 아이와 학부모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는 성적 경쟁, 학부모는 교육정보와 사교육비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

‘자율’과 ‘다양’이라는 말로 포장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어몰입교육, 대입 자율화, 일제고사 부활,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학교의 학원화, 사교육비의 폭증을 불러일으키고 학교교육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고 있다. 공교육을 포기하는 정책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일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은 학부모를 혼란스럽고도 불안하게 한다. 몇 살부터 무얼 시작해야 좋고, 누구는 어느 학원을 다니고, 누구는 고액과외를 한다는 등의 주변 이야기들과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믿었던 나의 교육관은 사라지고 내 아이만 뒤처지는게 아닌가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며 산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수록 부모는 아이에 대한 교육관을 바로 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슷한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책도 읽고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우리아이들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 새로운 관계 맺기

학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이리저리 선배라는 동네 학부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아이를 위해 학교를 드나든 선배 학부모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지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어떤 학부모



모로 살것인가? 학교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그동안 ‘내 아이만을 위한 학교 참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참여’를 통해 건강한 학교참여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해 온 선배 학부모들의 ‘아이 키우기에 대한 정보와 경험, 학교 참여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새학기 학부모 교실’이다. 이 자리를 통해 새내기 학부모님들께 건강하고 올바른 학부모역할을 안내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교과서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부모이며, 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성장한다.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적인 학부모 학교 참여, 그것은 곧 우리 아이를 이기적인 아이로 키워 더불어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생각하고 위하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아이는 분명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참여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학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니는 학교이며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

부모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의 중심기구이다.

■ 학교도서관 등의 자원봉사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없을 경우나 있다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은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식재료 검수 봉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산하에는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급식소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식재료검수와 급식업체 탐방 등과 같은 활동에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다. 매일 학부모 2-3명이 식재료를 검수하고 당일 급식을 먹어보는 일로 인해 학교급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학부모 부담 교육비 절감 활동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졸업앨범, 교복, 현장학습비, 학교급식비 등으로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학부모회

아직까지 학부모회는 법제화되지 못했다. 학교마다 임의단체(자생단체)로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있어 학기초가 되면 학급에서 몇 명씩 뽑아 단체를 구성한다. 학부모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앞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이나 교복공동구매, 자원봉사 등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남지부 새내기학부모교실 개최

해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과 똑같이 학부모들도 설레이고 긴장되는 입학전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졸업식을 하고 학부모들이 함께 모였다. 초등학교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문들과 긴장을 해소하고 학부모 입문교육을 받고 싶다고 한다.

충남어린이집 연합회 충남지부장인 조양순회원님과 아산지회장의 협력으로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50여명의 유치원 졸업을 한 학부모들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갖았다.

아산권곡초의 남미정 선생님의 신입생학부모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들, 교

사가 바라보는 학부모와 1학년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었고 우리회 충남지부장 김영숙님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방법과 학교운영위 참여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했다.

이번 새내기 학부모교실을 마련한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충남의 몇 곳을 더 진행할 계획이며 어린이집과 연계한 학부모교실을 통해 새로운 연대를 얻어서 보람 있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입학식 풍경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새내기 학부모교실 잘 준비하여 학부모들의 걱정은 뒤로 하게하고 등교하는 1학년 아이들의 발걸음도 가볍게 만들고 싶다.

교육정세와 2010년 교육감 선거

1.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계급(층)화 정책"을 밀어붙여온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2009년 들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잃어버린 10년'이란 표현에는 현 정부의 '개혁' 강박증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것이 독단적이며 속전속결 식 행태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1년간 익히 경험한 바다.

- '개혁' 강박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경향적으로 관찰된 시장만능론적 교육개혁이 성에 차지 않아 집권하기만 하면 한껏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마음 상태
- '대입3단계 자율화조치': 정부 출범 직후 공론의 과정 없이 전격 도입, 사실상의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등으로 귀결됨[대입3원칙(이른바 '3불정책')을 둘러싼 저간의 논란 참조]
- '4.15 학교자율화조치': "학교 시장화"가 그 본질인데, 이 또한 공론의 과정 없이 전격 발표하였음. 촛불정국 등으로 주춤하다 이후 또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임

교육과학기술부(청와대 포함)와 서울시교육청을 필두로 한 시·도교육청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합동으로 전선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면 조금 다른 양상이다.

- 국제중 설립: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울시 교육청이 앞장서고 교과부와 청와대 등이 '후원'하여 만든 작품
- 일제고사 실시: 평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시장화(결국에는 학교 서열화로 귀착) 기조를 천명한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 교과부가 앞장서 교육내용 전반의 이념 편향을 부채질 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이 앞장서 단위 학교의 교과서 채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 영재학급 도입 방침: 재정 투자 없이 영재교육을 빌미로 학교에 특권층 교실을 따로 만들려는 기획으로 이 역시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여론을 떠보고 있는 단계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수사 등에서 보듯 검찰 등 공안기관 등이 가세하고 있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2. 2009년의 교육정세와 관련하여 교육과학부 고위공무원단(세칭 1급)의 일괄 사표 사태는 눈여겨볼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수행 주체 내부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기 때문이다.

- 2009년 1월 12일 현재 일괄사표를 제출한 9명의 1급 관료 가운데 2명이 명예퇴직하고 1명이 좌천성 인사(대구시 부교육감)를 당함
- 기획조정실장, 서울시부교육감 등 나머지 6명이 유임되었는데,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학술연구정책실장(사학분쟁조정위와 대입자율화 업무 담당)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뒤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되어 있던 관료가 임명되었음
- 설왕설래해온 장·차관(보), 청와대 교육수석 등의 인사는 설 연휴 이후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치 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



다'는 판단 하에 관료권력에 대한 정치권력의 '균기잡기'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이번 인사 파동은 향후 조성될 교육정세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와도 같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인사 파동은 촛불정국으로 인해 낙마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관련 실세들의 재등장을 위한 포석 내지 정지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일괄사표'를 통해 관료집단의 균기를 잡아 향후 훨씬 '속도감' 있게 시장만능론적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그러나 이번 인사 파동이 집권 정치세력 실세들의 의도대로 마무리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인사 파동을 계기로 집권 정치세력과 관료권력 간에 조성된 긴장관계 내지 갈등이 2009년 가을을 전후로 하여 어떤 식으로든 폭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국정 전반에 있어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失政)과 무리수와 같은 '틈새'가 이런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집권 정치세력에 대한 관료권력의 저항을 꼽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정책 수행 주체 내부의 권력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공산이 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다른 한편, 2010년 6월 치러지는 지방 동시선거는 2009년의 교육정세에 영향을 주는 교육 외적 변인 가운데 가장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처해야 할 변수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을 통해 16개 시·도의 교육권력 구조상의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4.15 학교자율화 조치'만 놓고 보더라도 16개 시·도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범민주진영이 만들어낸 교육감이 탄생한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현 정부의 청와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항상 자기편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교육감에게 학교설립권 등을 권한을 대폭 이관하여 전선의 다각화 및 입체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최소한 1개 많게는 8개 정도의 시·도 교육감이 자신과 다른 정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말 그대로 자승자박의 상황이라 할 것인데, 이런 점만 보더라도 범민주진영

이 지방교육 선거에서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2010년 6월의 교육감(교육의원 포함) 선거는 현재의 틀 안에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다른 무엇보다 작금의 제도 개편 논란의 핵심이 이른바 '선거법' 논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생각처럼 그리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의원 선거 관련 법규는 마련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얽히고설킨 쟁점에 더하여 제 정파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미묘적인 수준의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범민주진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게임 룰'에 따라 2010년 6월의 선거를 치른다는 생각 하에 앞으로 전개될 제도 개편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4.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교육감(교육의원 포함)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운동진영은 수구·보수세력을 상대로 한 "광범한 연합전선 구축"이 필수적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전술 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적으로 수구·보수세력을 상대로 한 "광범한 연합전선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 역량으로는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질 2010년의 상황을 감당하기 벅찬 게 사실이다. 그러니 1년 반 남짓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컨대, 지방(교육)정치-행정학교를 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칫 잘못하다간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경험이 2010년에 '독'(毒)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천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솔한 평가가 필요한데, 여전히 그러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반성을 두려워해서는 미래가 없다.

김 용 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편집자 주] 본 원고는 지난 1월 17일에 진행된 23차 정기총회 프로그램 중 분과활동3 김용일 교수의 '교육정세와 2010년 교육감 선거' 원고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본 원고를 그대로 실습니다.

2009년 제23차
정기총회 참가기

대구지부
김영희 대의원

희망의 교육, 우리가 만들어요

지난 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열린 제23차 정기 총회를 다녀왔다. 버스를 타고 내려 총회 장소인 대전 유스호스텔을 찾아가면서, 총회를 오랜만에 참석하기에 약간은 설레고 약간은 낯설었다.

유스호스텔 마당에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어지는 걸 보고, 1층 현관을 들어가니 낯익은 이들과 미리 준비되어진 각종 자료집이 보였다.

내가 총회에 온 게 실감이 났다. 총회장 안에는 내가 아는 회원들도 많았고 처음 뵈는 회원들도 많았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어도 우리회는 친구조화를 꾀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총회 개최 전에 몸 살리기 강의와 특강이 두 꼭지 있었는데, 특히 '위기의 한국 경제와 우리의 삶'이란 주제로 진행된 특강이 경제 위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성을 띄어서 많이 유익하였다. 이어 총회는 새 회장으로 뽑힌 장은숙 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총회를 하면서 보니, 우리회 남자회원들이 꽤 많이 참석하였다. 참석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총회 진행 내내 적극 참여하는 열성을 보여주었다. 교육은 어느 한쪽 성만이 관심가질 것이 아니고 양성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보여줘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흐뭇한 광경이 많이 있었다.

총회 마치고 있는 뒤돌아 시간엔 20년 전에 우리회를 만든 김영만 고문님의 구성진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훈훈해졌다. 지

금보다 더 척박한 상황에서 '참교육'이란 소신을 이 땅에 뿌려 내린 선배님을 뵈니 그저 경이롭고 감사하기만 했다.

이번 정기 총회의 구호는 '위기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였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일보된 방향과 정반대의 모습을 띄는 현 정권 아래에서 사회 모든 요소마다 상식이 통하는 일이 부정되어지고 있다.

정치, 외교, 통일,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언론 분야 등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와 학부모들이 사람답게 살고자 그간 힘들게 쌓아올린 성과물들 또한 쉬이 허물어지고 있다.

달력에 적힌 세상은 2009년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30년 전을 연상하게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세상 만들기에 우리회 회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총회에서 보여준 새로 뽑힌 본부 임원들과 물러나는 임원들의 각오와 소회는,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희망을 주며 희망을 가지게 하는 교육으로 바꾸며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중요한 다짐이었다.

이번 총회에서 보았다. 마음 열고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애쓰면 그간의 불협화음이 봄 눈 녹듯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힘들지만 각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때 합의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주고 힘 받는 회원들이 되기를 빌어 본다.

009년 제23차
정기총회 참가기

광양준비위
박영실 회원

제23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17일 대전에서 개최된 참교육학부모회 제 23차 정기총회에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다녀왔습니다. 전국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먼곳 생소한 도시에서 낯설고 부담스러울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있을때는 하나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지부에서 많이 챙겨주었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고자 열망하는 사람들, 동지라고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광양지회회원님들이 서로서로 옆에서 함께 해주었기때문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로 챙기고 함께 했기에 1박2일 동안 주체적이고 당당한 참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의욕은 건강으로 부터 온다. 건강한 내몸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내 몸 내가 살린다.'의 1강을 시작으로 "MB교육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위기의 한국경제와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의 2강과 3강은 우리의 경제와 교육을 파행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오면서도 거리낌 없이 밀어 붙이는 독단적인 현정권을 실랄히 비판하면서 우리회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근대화의 싹을 틔우려는 중요한 순간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재와 군부체제하에서 교육철학을 성립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도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 없는 교육정책 아래 우리회의 끊임없는 고민과 활동으로 그 맥을 찾아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인 현 정권의 공공성을 상실한 미친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그 가속화 기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몫임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제 23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

니다. 우리회의 사업보고와 계획을 발표했고 몇 가지 안전처리를 하였습니다. 같은 생각의 모토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있지만 의견대립은 첨예화 되었고 다중심론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보면서 또 다른 작은 사회를 경험하였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피곤하기도 했지만 회원 모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우리회 선배님들의 지난 20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이 보이는 자리였으며 그 분들이 우리 광양지회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격려해 주는 정겨움 속에 큰 힘을 받고 왔습니다.

17일 일정은 각 관심분야 별 분과활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분과 회원의 성장과 활동가 발굴, 2분과 핀란드교육이야기, 3분과 교육정책과 2010년 교육감선거, 4분과 교장공모제 학교개혁운동 이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아쉬움을 남겨 우리 회원들이 각각 분야별로 들어가서 분과별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명강의였습니다. 내가 여기 참학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순간을 만끽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참학은 나의 일상에 많은 의문과 깨달음을 던져 주면서 더욱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손잡아 주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글 잘 잘쓰는 조건으로 구양수의 '삼다(三多)'를 듭니다. 이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위한 조건이라고 다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다독多讀) 자기기록을 남기고(다작多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다상량多商量)삶입니다. 우리회의 활동이야말로 구양수의 삼다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대행'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라, 공통의 안전으로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처지가 다른 사람은 처지가 다른 이를 절대 이해 할 수 없다. 처지가 같은 우리 학부모가 연대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먼 곳까지 운전해준 연진언니 감사합니다. 밤에 잠도 많이 못 잤는데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준 우리 회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

20년의 역사에 걸맞는 책무성·전문성으로 박차를 가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잇달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무식에서 "지난해가 새 정부 정책의 기틀을 형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정책을 현장에 실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들만의 교육정책을 실천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명박 교육정책은 다섯가지 실천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다.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입시 자율화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제 5)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초중등교육과정 모두를 초토화하는 정책들이며, 입시 사교육시장을 더욱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고교다양화, 학교정보공시제, 전국단위 일제고사 부활, 학교별 성적 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3단계 대학입시 자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동안 20여 년간 사회적 합의로 유지되어온 기여 입학제, 본고사 부활, 고교 등급제 적용인 3불 정책의 폐지를 의미 한다.

2009년 우리 교육운동 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과 이들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여 대안마련을 위한 운동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위기를 다시 희망으로...

우리회는 2009년 총회 슬로건으로 "위기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로 내세웠다. 위기를 맞아 이제는 우리회는 20년 전의 창립초기의 시대로 돌아가 조직을 다시 점검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각오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회의 활동도 변화해야 한다. 정책역량을 강화해서 반대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해 보고 일반 대중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지회 회원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학부모를 조직하여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함께하는 교육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회의 2009년 활동은 선명한 정책대응 활동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회를 지원하며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을 우선 할 것이다.

정책역량 강화, 학생인권 개선, 대중학부모를 위한 사업 강화

2009년 우리회는 20년을 맞이하였다. 20년의 역사만큼이나 우리회에 대한 시민 사회의 기대도 커졌고, 책무성 또한 무시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회는 그에 맞는 책무성과 함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정책사업의 체계화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책단위의 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부 자문위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정책관련 연구를 정리화하고, 임원 및 활동가들을 위한 정책연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회원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막연한 의견 제시 보다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제시하여 설득력 있는 정책내용을 생산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회는 20년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생인권 개선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현실은 4.15학교 자율화조치로 학생들은 또 다른 반인권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학교정보 공개로 학교 간 서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강제적인 0교시가 부활되었고, 체벌뿐만 아니라 벌점제를 강화하여 강제로 학생을 전학시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아이들이 행복해 하며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회의 조직의 안정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지부지회 지원체계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할 것이다. 또한 일반 대중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일상

사업을 전개하여, 지부 지회의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회의 조직을 안정시키는 사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일수록 교육의 본질과 철학으로 올바르게 견지하고 세워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펼쳐나가기 위한 교육의 본질과 철학을 고민하고 성찰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려한다.

20주년, 우리회의 도약을 위한 기회 마련

마지막으로 올해는 우리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다. 따라서 우리회의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대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우리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운동가들의 헌신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기회를 만든다.

20주년 기념사업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충실하게 준비하여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회의 일상 사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재정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올해의 중요사업 중의 하나다. 20주년을 맞이하여 재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물론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장은숙(회장)

“청소년과 문학,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청소년
문학
공간

청소년과 함께 자라는 나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청소년 문학의 새로운 출구를 열기 위해 애쓰는 작가, 그리고 이들의 소통을 지지하는 현장의 선생님이 서로 만나 읽고, 쓰고, 마주하고, 숨 고르며 청소년 문학의 큰 숲을 가꾸어 나갑니다.



청소년들의 문학마당 계간, 《청소년문학》에는 읽을거리가 가득합니다!

▶ 사진으로 읽는 풍경

《한겨레21》의 류우중 기자가 뜻을 담아 찍은 사진과 메시지.

▶ 칼럼

《만지일보》 충수 김어준의 아주 특별한 칼럼.

▶ 기획연재 _ 10년 뒤 교과서에 실릴 우리 시

나희덕 시인이 직접 엄선한 세 편의 시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인 글.

▶ 만화공감 _ 얼렁뚱땅 생활기록부

미술 교사 신의철 선생님이 만화로 실감나게 그려낸 좌충우돌 학교 이야기.

이 밖에도 기성 작가들의 문학 작품과 인터뷰, 청소년 글터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누구나 거치는 청소년기이지만,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고뇌, 방향, 꿈, 그리고 사랑. 《청소년문학》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박상률(작가, 숭의여자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문학을 즐길 줄 안다면 인생이 외롭지 않다. 문학의 시작이 있다면 그건 십대부터다. 《청소년 문학》은 그 시작의 동반자다.
-한미화(출판칼럼니스트)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느리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담고 있는 《청소년문학》은 청소년들이 세상과 소통하도록 돕는 열린 마당이 될 것입니다.
-이상권(작가)

나라말

1년 정기구독 32,000원(정기구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02-3676-1511 | 누리집 www.naramal.kr | 전자우편 naramal97@hanmail.net

❀ 제 23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위기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



지난 1월 16~17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2009년 제23차 정기총회는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 교육의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단련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첫날 “내몸내가 살린다” (송종환 (사)몸살림 사무총장), 특강Ⅰ 교육현안 -MB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유인종 고려대 명예교수/전 서울시교육감), 특강Ⅱ 위기의 한국경제와 우리의 삶(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센터장)이 진행했고, 다음날은 분과활동으로 회원성장과 활동가 발굴(박영미 여성단체연합 대표), 핀란드 교육이야기(공영태 진주교대 교수), 교육정세와 2010년 교육감 선거(김용일 해양대학교수), 교장공모제와 학교개혁운동(김인봉 장수중학교 교장)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준비된 강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분과활동에서는 좋은 강의 내용을 나눠서 들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고르는 고통을 주는 본부가 싫다는 평가도 나왔다. 본 지면에서는 특강과 분과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덧붙여 사진은 오영준 남부지회회원, 파주지회, 광양준비위, 김해지회에서 도움을 주셨다. 더불어 총회를 준비한다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 문서자료실 총회 자료집과 동영상 파일을 참고)

1 특강Ⅰ. 교육현안 -MB 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특강은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을 모시고, MB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현안을 듣는 자리였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은 MB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은 분명히 거꾸로 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 교육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면, 그리고 교육의 선진화의 관점에서 보아도 분명히 70년대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만약 정책의 수정 없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 된다면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사교육 천국의 나라 또는 사교육 대란의 나라가 될 것이며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고 입시 몰입 교육은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에서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이 거국적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어른들의 의식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이며, 참교육학부모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특강Ⅱ. 위기의 한국경제와 우리의 삶



위기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 센터장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병권 센터장은 현 경제위기는 2009년 하반기에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며, 글로벌 경제 위기는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설명한다.

김병권 센터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자신의 기존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잠시 모순된 정책들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MB노믹스는 불가피하게 2009년을 넘기기 전에 심대한 변형을 받을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간을 다투는 위기의 순간에 대한 대처가 잘못된다면 뒤늦게 정책 전환을 해도 그 수습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막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2009년의 경제회복에 대한 그 답은 정부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3 분과활동1 : 소모임 활성화와 회원성장



조직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회원의 중요성은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분과활동중 하나로 회원의 성장과 소모임의 중요성을 박영미 한국여성단체 공동대표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활동가 중심의 활동은 조직의 위기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회원 조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모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모임 성원들의 뜻을 모아 실천활동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생활과 생활조건,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학부모운동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조직 안에서 자유롭게 소모임을 만들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스스로 주도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소모임의 활동이 조직의 목표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회원의 요구를 확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분과활동2 : 핀란드 교육이야기



최근 우리 사회는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주목하고 있다. 공영태 진주교대 교수를 모시고 핀란드 교육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영태 교수는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주목하고자 할 때 어떤 이들은 핀란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의 성공에 대한 회의와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핀란드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로 핀란드 교육의 특징은 학교는 학교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행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 또한 적극적인 참여자로 각자의 교육적 역할을 찾아서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을 평범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제성장에 밀려 우리가 잠시 뒤로 밀쳐놓은 교육의 참 모습을 핀란드는 묵묵히 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새롭고 특별한 수업 모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만, 그 결과 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도 부족하여 밤늦게 학원에서 공부하지만, 외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공부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사용하고 즐겁게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학력에서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6 2009년 제23차 정기총회 참가기

대전에서 엄마의 제안을 받고 평소 참교육 학부모회로 봉사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일까.' 하고 따라가 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금 놀랐고 그만큼 호기심도 더 커졌다. 내가 들은 강의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전 서울시 교육감 이었던 유인중 교수님의 MB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경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헉.. 대단하신 분이다' 하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처음 공약에는 과외를 받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정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끔찍했던 교육정책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영어 몰입교육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일제고사와 동시에 그 공포를 우리에게 알려 주었고, 역사교과서를 수정 하는가 하면, 실시된 지 1년도 못가서 다시 바꾸는 대학 입시제도에다가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때문에 생긴 '0교시 수업'과 '심야 학습' 등등... 우리들의 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에서 '미친교육'이란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제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굳이 0교시나 심야학습을 따로 시키지 않아도 지금도 충분히 사교육에 들들 볶이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창의성 있게,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여유롭게 공부하는 선진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사교육 속에 똑같은 방법으로 읽고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청회나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직 독단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추진 되었다는게 어이가 없었고 당황스러웠다. 계속 이어지는 강의 시간. 가만히 앉아있으려니 빠르기도 했고 지루해 지려고 할 때쯤 정신이 확 돌아오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요새 누가 백화점엘 갑니까?' 몇일 전, 싫다는 엄마를 조르고 조르다가 떼까지 써가며 백화점에 가서 절대로 빈손으로는 가지 않을 테다, 라는 내 의사를 행동으로 딱 보여줘 가며 엄마를 고생시켰던 것이 생각났다. 철없이 군것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강의를 듣고 있던 엄마 보기가 살짝 부끄러웠다.

강의가 끝난 후 총회를 할 때 나는 밖에 나와 있다가 뒤돌아 할 때 즈음에 다시 들어갔다. 배도 고파왔고 맛있는 것들을 기대하며 자리에 앉아있었다. 하나둘씩 책상을 붙여서 조를 이루고 접시를 나르고 (먹을 것이 들어있는 듯한) 박스를 나르고 몹시 분주했다. 모두 피곤하실텐데... 그래도 뒤돌아서는 즐거운 건가보다. 다들 웃고 떠들고 재미있어 보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모두들 어른들이었기에 조로 이루어진 책상 위엔 맥주병이 한가득, 오징어와 땅콩으로 이루어진 접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감히 깰 수도 없었고 해서 오징어나 씹으며 홀로 숙소로 돌아왔다. 때마침 텔레비전에서는 절친 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게스트들이 저녁식사를 하고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찌개에 갖가지 반찬들을 가지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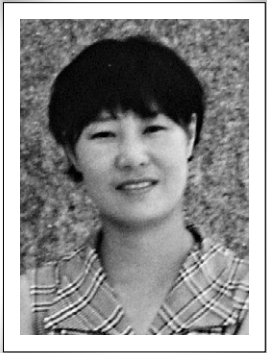
강의 내용도 좋았고 텔레비전도 의외로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서 좋았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우리 경남지부에서는 남녀 합숙을 했다는 것이다. 잠자리가 쪼오금 불편했던 점과 온도 조절이 안되어 있는 듯한 방은 너무 더워서 절절 끓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좋았던 경험이었노라고 생각을 하며 제대로 못잔 잠을 마저 꾸욱 잤다.

정예원(푸른꿈고등학교 1학년)



사람향기 바람따라

●전영미
(전 본부 교육국장)



나의 30대는 참교육 학부모회와 함께 시작되었다. 내 딸아이는 유치원생이었다.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바쁜 하루하루, 정말 보석같은 날들이 이어졌다. 뜻을 같이하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너무도 귀중하게 여겨졌고

그때의 만남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처음 시작했던 학부모 교실, 일일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교육 등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학부모회의 재정난을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학부모회를 알렸던 일석 이조 활동, 각 민주행사시 대학을 돌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들었던 음식을 팔던 때의 일화 등 많은 일들이 20년 전으로 나를 돌아가 보게 한다.

학부모회의 바쁜 활동으로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다. 딸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난 대견하고도 두려웠다. 나 또한

어린 시절 수줍음이 많아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숏기 없는 딸이 어떻게 학교라는 사회에 적응할까 걱정이 되었다. 그 무렵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자녀 학교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되도록 권장했다. 때문에 나는 학교에 자주 가는 편이었다.

우리교육이라는 잡지를 사가지고 참교육학부모회원이라는 사실을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알려드렸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셨고 경계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딸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 우리 가족은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동안의 피로를 핑계 삼아 난 학부모회 활동을 접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관심은 학부모회 활동 때보다 더욱 더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아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해결사의 노릇을 하였다. 난 성격이 급했고 아이는 어찌면 살아가는 데 장점일 수도 있는 그림의 성격을 지녔다.

어쨌든 딸아이는 뭔가를 결정할 때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대학교의학과 선택에서도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화하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딸아이는 전공 공부가 자기와는 맞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었고 방향을 하게 되었다. 이제 딸아이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의해 다시 시작하고 있다.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지금 딸아子和 난 싸우다가 다시 화해하기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 참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성숙도 함께 커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아이와 함께 한 시간의 양적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내면의 성숙도 문제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난 낙제점 엄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안하다 딸아, 너를 정신적으로 빨리 독립시키지 못했음을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엄마도 너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우린 서로 없으면 불안해하는 정서적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었던 거는 아닌지 모르겠다.

“딸아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펴고 자신감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오.” 그래도 나의 딸은 참교육학부모 시절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약력 '2000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도슨트로 활동 중

● 선배에게 듣는다③ 오성숙(전 7대회장)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기보다, 작은 뭍이라도 함께 동참해야

오랜만에, 거의 10여년 만에 우리 회의 총회에 참여했다. 총회에는 많은 대의원과 회원들이 참석해 활을 꽉 채우고 있었다. 나와 함께 활동하였던 사람들 중에는 1, 2대 회장이었던 김명만 고문님과 김완자 고문님이 와 계셨다. 아, 얼마나 반가운 얼굴들인가.

참교육학부모회가 창립된 지 20여년 가운데 전반기 10여년을 저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10여년 후 돌아온 우리 회에는 이제 그 옛날(?) 동지들은 간 데 없고 젊은 후배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이가 들면 교육문제들이 우리 삶의 관심사에서 우선 순위가 밀려나서일까? 언제가부터 우리 회에는 자녀가 중학교 가고, 더구나 대학까지 가고 가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이 전통처럼 되어 버렸다.

자녀가 대학 가면 개인적 차원의 교육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10여년 전 내 삶의 여정에서 이 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오른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초창기 10여년은 참으로 고단한 시기였다.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 대량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이 길거리를 헤매었고, 그것이 안타까운 우리 회의 회원들도 거리 시위와 서명운동, 교사 쫓기대회 등에 함께 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고 일상사였던 시절이었다. 우리 회의 가입 자체가 알려지면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자녀가 학교에서 눈총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걱정되면서도 열

심히, 열심히 외치고 싸웠던 시절, 그러나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어 회의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제 민주정부, 참여정부라고 자부하는 김 대중, 노무현 정권의 10여년을 지나 참교육학부모회는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20주년사 간행도 준비 중이다. 이 20년사의 말미에서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열심히 했고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이제 이만큼이나 나아졌다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복한 교육을, 집에서는 편안함 속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다시 등장한 권위주의의 정부 아래서 그동안 조금씩이나마 진전되어온 교육적 성과들이 하루가 다르게 내팽개쳐지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참교육과 함께 성장해 대학 가고 졸업하고 결혼해 생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더 한층 살인적 입시경쟁과 서열화로 내몰리고 있다.

늦게 돌아오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배고픈 아이가 “엄마,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버스 토큰이나 받는거야?” 하던가, 수익사업 물품을 차에 싣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던 어느 날, “엄마, 기름 값이나 받아 왔어”하며 시니컬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던 때가 있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물론 성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에서 아이 낳기가 겁난단다. 초등학교부터 치열해져 가는 성적 경쟁 속으로 아이들을 휘몰아가는 우리 사회 속

에서 행복은 아예 저당 잡히고 허우적거릴 아이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될 사교육비의 부담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제 할머니가 되어 가는 나. 그래서 다시 참교육학부모회로 눈길을 돌리고 후배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며 다시금 없는 시간을 쪼개려 하는 걸까?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떨어져 있었던 지난 10년, 나는 늘 되뇌이곤 했다.

내 삶을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일로 채우고자 정진했던 그 시간들이 행복했고 의미있었다고. 그리고 참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슬그머니 사라지려 하지 말고, 계속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다행이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와 자율화를 앞세우며 중앙 권력의 많은 부분을 지방 교육청에 넘기려 하고 있다. 이게 지부, 지회가 많은 우리 회에게는 부담이자 기회의 시기로 다가 오고 있다. 앞으로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싸워야 할 일이 많아졌고 여기에 회원들의 참여와 힘이 모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 선거, 교육감 선거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대단히 의미 있는 한 해가 참교육학부모회의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모든 교육적 상황이 실망스러운 지금, 우리는 이제 그저 물러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또 내 아이의 아들 딸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으로 던져지고 있지 않은가. 굶이져 흘러가는 길다란 역사의 한 여울 속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작은 뭍을 채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단 참교육학부모회에 발을 들여 놓은 한에서는.

안승문의 스웨덴 - 핀란드 교육이야기 ⑨



안 승 문
스웨덴 옉살라대학
객원연구원
edu2010@hanmail.net

옉살라의 크반야르데 학교(Kvarngardesskolan)에서는 해마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사이에 학생-교사-학부모가 만나 함께 대화하는 이른바 ‘발달 대화’(development conference, development talk)의 자리가 마련된다. 8월 하순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로 치면, 새 학년이 시작되고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는 학부모 면담인 셈이다.

한 학년도에 최소한 두 번(학기당 한 번) 개최도록 되어 있는 ‘발달 대화’는, 날짜를 하루 정해서 학부모 전체를 초청해 한꺼번에 하는 면담이 아니라, 하루에 두세 명 정도를 정해서 학생과 부모들이 방과후 약속 시간에 학교에 오게 하여 만나는 특별한 만남이자 정례화된 행사의 하나이다.

이러한 ‘발달 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개인별 발달 계획(IUP = Individuell utvecklingsplan,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즉,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어떤 배려나 지원이 필요한지, 학생이 학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개인별 발달 계획’이라는 형태의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발달 대화가 시작되면 먼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지난 번에 발달대화 결과 세웠던 목표와 실행과제가 잘 실현되었는지, 학생에게는 어떤 긍정적/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생이 먼저 자기 평가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담임은 각 교과 담당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과 관련해 기록해 준 소견

(잘 하는 것, 향상된 측면 등이 중심이 되는)을 읽어주고 학생의 학습이나 생활에 대해 담임으로서의 견해를 얘기한다. 학부모도 자녀의 발달 상황과 관련해 얘기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새 학기에 학생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학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학기의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이어진다. 새로운 학기에 학교 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은 무엇을 해야 하며,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고, 학부모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하고 합의점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이른바 ‘개인 발달 계획’에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서명하여 일종의 합의문으로 만들어지며, 다음 발달대화가 있기 까지 일종의 지침이 된다.

오래 전부터 스웨덴의 많은 학교에서는 이런 형태의 대화가 있어 왔지만, 2006년 봄 학기부터 스웨덴 내의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종의 법적인 활동으로 제도화 되었다. 스웨덴 의회가 2005년에 ‘만6세부터 고등학교(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개인별 발달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개인별 발달 계획’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로 충분히 현장에 정착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학생-교사-학부모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스웨덴 정부와 국가교육청이 겨냥하는 개인별 발달 계획 수립 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발달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 학생들이 자기의 학습에 대해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

△ 학생들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을 명확히 한다.

△ 학생 개개인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참여를 강화한다.

△ 개별 교사와 교사 팀 및 학교의 변화를 촉진하고 교육의 계속성을 확보한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핀란드의 학교들에서도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3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개인별 발달계획 또는 개인별 학습계획의 형태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면서 학교 생활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북유럽 학교의 발달 대화(3자 대화)가 가지는 특징은, 학생의 학습과 발달을 위해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나서 한 학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논하고 합의하며 세 사람이 함께 서명하여 약속하는 과정이라는 데 있다. 저학년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발달 대화는 교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기 발전이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조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2009년에는 우리 나라의 학교에서도 의례적인 학부모 면담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하는 새로운 형식의 대화 마당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학부모일기

일단, 한 번 와 보세요!

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어느 운동회 날, 나는 특이한 억양으로 상냥하게 말씀하시는 인상 깊은 한 학부형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등교를 도와주며 따라다니던 어느 날 또 다시 그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워 나는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 한 잔 하실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여 동네 학부모들과 학원과 공부 이야기에만 파묻혀 목말라하던 내게 뭔가 시~원하게 다가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나는 이렇게

하여 참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쿨하게 외향적이지도 않은 내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쑥스럽고 어설피고…… 그러나 우리 참학 회원들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제는 재미도 더 해가고 삶의 지혜와 기쁨을 찾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직 남들에게 우리화를 알리기에는 너무나도 지식이 얇지만, 아이들의 눈

높이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한 엄마라는 사실에 나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입 인사점 자기소개 글 하나 적어주세요” 라는 여율(지회장)님의 말씀에 빼고빼고 빼다가 더 이상 빼지 못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적은 글이지만 제가 ‘참학’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는 점과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어머니들과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오늘과 같이 입시공부라는 틀에 갇혀 있는 우리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이나마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에 작은 도움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말합니다.

“참학은 무조건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전교조만 따라가며 손들어 주는 단체 아닌가요?” 일부 편파 언론 때문인지 선입견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 나는 정말 외치고 싶다.

“안 와봤으면 얘기를 하지마세요~~~! 한 번 와 보세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분명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받으실 것이고 대박나세요.

이정애 (의정부지회 회원)

경주준비위

교육에 대한 해법을 얻어가는 소통의 장
‘경주교육정책 포럼’

2008년 한 해 동안 준비위원회 기간을 거치면서 경주교육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의 이름으로 ‘말’ 한다는 게 두렵고 ‘공식적’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집행부들과 교육정책에 대해 좀 더 일관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의견이 오가다가 ‘울산’ 지역에서 울산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포럼’ 형식으로 매월 시민들과 공개된 토론과 논의의 장을 가지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경주에서는 작게, ‘교육정책’에만 초점을 맞춰 ‘포럼’ 형식의 정례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8년 11월에 아이들의 일제고사와 실랑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이유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역교육과 입시제도’라는 제목으로 첫 포럼 모임을 가지

게 되었다.

첫모임에서 토론과 논의를 전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인 김민남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였고, 지역 시민단체인 ‘청년센터’, ‘YMCA’, ‘전교조’ 등에서도 몇 분이 참관 겸 토론에 참여해 주셨다. 이후 이모임을 2009년에는 총 8회로 각각 주제를 정해 실시하기로 하고 몇 가지 주제를 정해 진행하고 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아

니라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교육에 대한 해법을 얻어가는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2회, 3회를 열어가려고 한다.

경주에서 참교육학부모회의 교육운동이 지역교육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정을 만들어가는 진지하고 힘찬 것이기를 바라며 또 다른 노력과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경주교육정책 포럼 계획

2008.11.26.
첫모임 : 지역교육과 입시시험

2009. 1. 13.
지역교육과 교육자율화

2009. 3. 17.
지역교육과 학력신장, 평준화

2009. 4. 14.
지역교육과 좋은 교사, 교사평가

2009. 5. 12.
청소년 인권과 문화

2009. 6. 16.
청소년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2009. 9. 15.
서울과 지방의 편차: 지역교육 발전의 방안

2009. 10. 13
내 아이를 성장시키려면...: 영어교육과 특성화 교육, 대안교육의 기로에서

2009. 11. 17
학부모가 바라는 지역교육

문화사랑방

책으로, 그리고 몸으로 독자들 과 만나는 산티출판사

열다섯 명의 사람들이 소박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수료식을 가진다. 석 달 과정의 강좌를 잘 마쳤음을 축하하며 수료증을 나누는 자리였다. 채식단으로 꾸려지고, 파 마늘 등 오신채도 쓰지 않아 속도 편안하고 맛도 좋으면서 요리 방법이 단순소박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설거지도 간단한 자연식 요리 강좌였다. 음식을 해 먹으면서 요리에 관한, 자연환경과 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은 몸이 맑아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한다.

이런 요리 강좌를 주최한 곳은 다름 아닌 출판사. ‘출판사에서 웬 요리강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출판사에서 는 요리 강좌만이 아니라 아이와 참 소통을 원하는 부모를 위한 비폭력대화 강좌, 독자들과의 산행, 목사와 스님을 모시고 고민을 풀어가는 즉문즉설, 치유 프로그램인 가족세우기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책이 문자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이자 지침이 되기를 바라서다. 요리강좌도《문

성희의 자연식 밥상(가제)》출간을 앞두고 책에 소개된 음식을 직접 독자들과 만들어보는 자리였다. 철학 따로 책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이 출판사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산티’라는 이름의 출판사다.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라는 뜻을 지닌 이 출판사는 운영 방식도 독특하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판계에서는 최초이자 그 이력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이다. 10만원, 30만원, 100만원을 내면 각각 인쇄회원, 줄기회원, 뿌리회원에 가입된다. 가입 후에는 산티의 책을 회원별로 10권, 33권, 100권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을 사겠노라 미리 약정하는 선불제이자 직거래 방식인 셈인데 출판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회원은 200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책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티의 여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을 찾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

또 산티에는 지향이나 운영방식이 비슷한 친구회사가 있는데 회원이 되면 그 회사들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혜택이 주어진다. 한 예로 대안교육잡지《민들레》를 산티 회원이 정기구독하게 되면 20%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데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유통상의 병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책이 팔릴 책임가 아닌가보다 좋은 책임가 아닌가에 더 마음을 모으고 싶어서다. 이들의 바람대로 3천 명의 회원이 생긴다면, 이들은 더 파는 데보다는 더 좋은 내용의 책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 6년 동안 낸 50권의 책들 중 3분의 1이상이 이런 저런 기관으로부터 양서로 추천을 받았다.《선이골 외딴집 일곱 식구 이야기》《밥맛이 극락이구나》《붓다, 나를 흔들다》《내 나이가 어때서?》를 비롯해 청소년 도서로 선정된《너, 행복하니?》《당신도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세상을 향해 어퍼컷》《내 안의 열일곱》등도 이 출판사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책을 매개로 사람



들을 만나지만, 책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더 걸어 나와 그들과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는 것, 이것이 산티출판사의 꿈이다. /송환웅

〈안내〉 shanti@shantibooks.com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면 산티 회원이 아니라도 신간과 행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 : 02-3143-6360 / 블로그 : <http://blog.naver.com/shantibooks>

‘과격시위’ 강조해 철거민 매도하는 조·중·동



1월20일, 용산 재개발 지구 철거민들이 농성을 벌인지 25시간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용산 철거민 참사는 1%의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가 빚은 참사다. 6명이 숨진 용산 철거민 참사 다음날인 21일 조·중·동의 보도를 보면 참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과격시위’를 강조해 살인진압의 책임을 ‘몰타기’하고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는 데 급급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문화일보도 21일자 머릿기사 제목을 “땅루 농성 사전 연습했다”로 뽑고, 4면에서 전철연과 철거민을 ‘과격 폭력’ 집단으로 매도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참사의 일차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이명박 정권이 재벌과 주도하는 뉴타운 개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1면 톱으로 배치하여 애써 용산 철거민 참사를 축소하려 하였으며, 사설 <철거민 진

압작전의 가슴 아픈 결말>에서 철거민들의 ‘과격시위’ 양상과 경찰의 대응을 전하면서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2면 ‘신경무 만평’에서는 제목을 <‘불법’과 ‘무데뽀’...>로 달아 농성장에서 화염병을 들고 “에이 설마...”하는 철거민들과 “돌격!!!”을 외치는 경찰 특공대의 대치하는 모습을 그려, 철거민의 ‘과격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양비론적인 시각을 펼쳤다.

중앙일보도 사설 <수도 한복판서 벌어진 부끄러운 참극>에서 “점거 농성에 참여한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과 철거민 양쪽에 책임을 묻고, 1면 톱 <화염병 시위 중 시너 폭발 농성자 5명 경찰 1명 사망>과 4면 기사 <쟁점 1, 피해 왜 커졌나>에서 참사의 원인을 ‘화염병 시위’로 부각시키고, 철거민의 화염병 투척이 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용산 참사, 책임 소재 가리되 정쟁화는 안 된다>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 이번 과격 시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1면 톱 <극한 충돌이 대형 참사를 불렀다>에서 참사의 일차적 원인이 ‘과격시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경찰의 ‘과잉진압’과 철거민들이 영하 10도를 넘는 한겨울에 극한 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뉴타운 개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설 <이명박식 강압 통치의 예고된 참사>에서 “참극의 일차 책임은 과잉 진압을 서두른 경찰에 있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25시간 만에 경찰이 진압에 나선 것도 정상적이진 않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불도저 정권의 ‘밀어붙이기’가 빚은 참사>에서 “우선 지적할 것은 공권력의 무리한 개입”이라고 지적한

후 “사회취약 계층에 불과한 철거민을 상대로 무자비한 진압”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참사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책임을 ‘과격시위’로 돌리려는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하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찰청장 내정 철회 및 해임”을 요구했다.

용산 철거민 참사를 보는 보수 언론과 진보적 성향의 언론보도가 이같이 다른 것은 왜일까? 용산 철거민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양심적인 보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 경희대NGO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기

참학에서의 행복한 시간

벌써 두 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짧다면 짧은 ‘이’ 시간동안 ‘이’ 곳 참학에서 참교육을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일에 치여사는(?) 분들을 만났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아주 실낱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참학에 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에 비해서 지식은 미비하며 참학이라는 곳도 이 곳에 와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참학을 좀 더 알게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첫 날 단체로 배정을 받게되자 나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혁이라던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공교롭게도 그 날 저녁뉴스에 교육 이슈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참학의 이름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예감은 오래지 않아 곧 실현되었다. 총회 준비 등을 비롯한 업무들은 곧 사무실을 바쁘게 돌아가게 하였다. 당시에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실 나보다는 다른 선생님들이 훨씬 더 바쁘고 고생스러울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에

게 가르치며 일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를 예전에 뼈저리게 느껴 봤었기에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실수를 하기도 했으며 되려 나에게는 새롭고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배우기도 하며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국제중·자사고 설립, 415학교자율화 조치, 치솟는 등록금 문제 등 연일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만 가득한 것 같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부지런함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처음 시민단체라는 곳에 조금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지금의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피해 받고 고통 받는(그 속에는 등록금에 고통 받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 같아서이다.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려 한다. 물론 두 달이 지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보고 겪었던

일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학부모, 교사로서의 내 삶에 기름진 토양이 될 것임에 절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상환 (대구교대 사회교육과 2)



2008년
상담
통계분석

성적향상만 몰두하는 학교 속에 무너지는 학생인권

체벌, 언어폭력, 부당징계, 벌점제 사례 대폭 증가

2008년 상담의 특징은 우선, 2007년 비해 상담 건수가 대단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전년도의 총 상담 건수 429건에 비해 금년도는 총 604건이다.

상담내용에 있어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학교문제와 교사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학교문제는 주로 학교비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불법찬조금이나 학교운영위에 대한 등에 대한 문의나 해결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 부분은 교사위에 연결하여 처리하였다.

교사문제는 전년의 130여 건에 비해 많이 증가한 187건이었다. 정권이 교체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인격과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기보다는 입시성적과 일제고사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 학교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체벌과 언어폭력이 대해 교육당국이 방관하거나 조장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는 이런 교사들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증거일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건수가 전년의 17건인 반면, 올해는 38건이다. 2007년 9월 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 이전보다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했음에도 학교에서는 안전공제회 신청조차 해 주지 않고 있다. 학생의 장난이나 부주의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과실이 있어 안 된다고 하고,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사고는 가해자가 명백하다며 신청조차 해 주지 않는다. 다친 학생이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거나 상대방 학생의 학부모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치료비를 두고 학부모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중재를 해 주지 않을 뿐더러 신청도 해 주지 않음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목적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므로 다른 교육단체와 법률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2008년 상담 통계 분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전 화 상 담	자녀인성		2	3		4	1	3	1	3		1	18
	진로학습문제					1							1
	학교폭력			2	2	5	5	6	4	3		3	30
	부당징계			2	4	5	4		4	1	4	1	25
	교사문제			6	18	22	20	13	11	13	8	4	115
	학교문제		3	16	11	3	21	7	6	8	3	2	80
	안전사고		2	4	2	4		4	5		2	4	27
	기타		6	4	2		3	5	3	1	5	1	30
	월 계		13	37	39	44	54	38	34	29	22	16	326
사 이 비 상 담	자녀인성			1		1	1		4		2	2	11
	진로학습문제						1						1
	학교폭력	2		2	4	3	1	1	1		1	1	16
	부당징계	1				1	2			1			5
	교사문제	1	1	4	11	11	12	13	3	5	6	5	72
	학교문제		1	13	43	18	18	14	1	4	1	8	121
	안전사고	1			1	2		2	1		3	1	11
	기타	1	3	5	8	9	1	9			4	1	41
	월 계	6	5	25	67	45	36	39	10	10	17	18	278
	총계	6	18	62	106	89	90	77	44	39	39	34	604

부당징계도 전년도는 7건에 비해 30건으로 증가하였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전학가라고 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로 학칙위반을 했을 때 징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벌점제는 주로 고교에서 명문고 만들기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시달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학조치를 악용하여 교사들에게 밀보인 학생들을 퍼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학조

치는 매우 당황스럽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충분히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선처를 촉구하지만 학교당국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전학 보내 버린다. 학교에서 합법을 위장한 자발적인 모양으로 전학을 보내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특별한 지침이나 지도에 의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우리 회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복지교사로 일하며

저소득층이나 기타의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인성 형성을 돕고 지역 사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한지 2년째다.

아동복지교사로 일하기 전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인식만 갖고 있었고 TV에 어려운 처지의 이웃이 소개되면 조금 슬퍼하다가 한 통화 2000원의 성금을 내는 것으로 만족했었다.

그러나 센터에 오는 아동들을 보면서 사회 양극화로 인해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교육 격차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도 힘을 잃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상승이동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은 깨진지 오래다. 더욱이 지식기반 사회로의 급진전이 학습 및 정보 격차를 더욱 벌어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아동에 있어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 같다.

빈부 격차의 심화, 이혼 가정, 가족 해체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아동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래도 처음 엄마 손에 이끌려 서먹서먹한 모습으로 왔다가 다른 아동들도 자기와 비슷한 환경이라는 것에 안도하며 금방 어울리는 것을 보면 안심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센터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그만두게 되는 아동을 보면서 좀 더 그 아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마음에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아직까지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아동 복지 서비스가 너무도 미미하여 그 아동과 가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나라 아동 복지 예산이 매우 낮고 그마저도 축소되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빈민층 아동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기부터 교육적 복지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 교육받은 기간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의 학습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요인이라면 현재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아동은 어린 시절에는 교육적 차별을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차별을 이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가난을 대물림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정의 및 교육적 평등,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회균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기정 (학부모상담실 상담원)

도시개발 대표그룹



꿈을 세계로 펼쳐갑니다

가치를 미래로 키워갑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글로벌 디벨로퍼로 -
꿈의 주거공간을 창조하는 도시개발 대표그룹

Dream Space Developer - DSD



DSD삼호·DSD부림·한독건설·신삼호·삼호건설·호담·소리자비

**Dream
Space
Developer**